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5 “우리도 뛰다”



광주시 환경시설공단 직원들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 출전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는 파이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선진 환경도시 꿈꾸며 시민들과 힘찬 스타트”

■ 광주 환경시설공단

“광주를 1등 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직원들의 의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시 환경시설공단 직원 36명의 각오는 남다르다.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광주를 환경선도 도시로 만든다’는 각오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극 실천하는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마라톤 마니아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나 클럽은 아니지만, 많은 직원들이 대회에 참석키로 뜻을 모은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작년 ‘폐기물 자원화’ 최우수시설 선정

환경시설공단은 최근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가 지난해 주관한 ‘음식물류 폐기물 우수제품 자원화시설공모전’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환경시설 공단은 하수처리장, 매립장, 소각장, 위생처리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환경에 필수적인 공익시설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대부분 직원들이 5km 코스에 출전하지만, 눈에 띄는 선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10km에 도전장을 낸 임보섭(44·매립운영팀)씨는 대표적인 건각이다. 초등학교 때 육상 중장거리 선수로 뛰었던 그는 10년

넘게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온 베테랑이다. 그는 이번 대회 참가를 도약의 디딤돌 삼아 올 가을에 열리는 춘천마라톤과 동아마라톤 하프코스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마라톤 마니아인 그는 때마침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 토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 부인과 딸 임지수(15)양, 아들 임재강(11)군의 손을 잡고 대회에 참가한다.

직원 36명 출전...대부분 5km 도전

임씨는 “가족들의 화합을 다지고 체력을 기르는 데는 마라톤만한 스포츠가 없다”며 마라톤 애호가를 자칭했다.
음식물 자원화팀의 주영만(33)씨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 2년 연속 출전한다. 지난대회에서 10km를 52분대에 통과한 그는 올해 목표를 40분대로 잡았다. 페이스가 좋을 경우 입상권인 30분대 초반까지 페이스를 끌어올릴 생각이다.
그는 “뛰어보지 않은 사람은 코스를 안주했을 때 느끼는 희열감을 알 수 없다”며 “매년 코스를 완주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 때문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인, 두 아들과 대회에 참가하는 고영실(42·매립환경팀)씨도 뛰어난 마라톤이다. 오전 6시에 회사에 출근한 뒤 회사 주변 4km 코스를 매일 달리는 등 마라톤을 생활화하고 있다.
정구선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시민들과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지방 공공기업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치평초 “우리가 최강”

‘철십리기 전국초등배구대회’ 우승
삼덕초 제압...창단 2년만에 쾌거

광주 치평초등학교 여자배구팀이 ‘제8회 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에서 우승했다.
치평초는 15일 제주 서귀포시 동흥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결승에서 대구 삼덕초등학교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제압하고 감각의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치평초는 지난 2005년 12월에 팀을 창단 한 후 2년여만에 전국 정상에 서는 기쁨을 통해 오는 5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예선경기부터 단 한세트도 내주지 않고 완벽한 경기를 펼친 치평초는 이날 결승에서 대구삼덕초를 맞아 레프트 강혜수·김혜원(5년)과 라이트 김보미·이수경(5년)의 속공플레이로 1세트를 25-16으로 제압, 기세를 올렸다.
2세트에서도 수비수 서보영·나혜영(5년)의 철벽수비와 이가영(5



치평초등학교 여자배구팀이 ‘제8회 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우승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년)세터의 콤비플레이로 25-15로 셋아웃 시켜 우승 행가를 걸었다.
한편 치평초는 이번대회 예선 첫경기인 대구 신당초등을 세트스코어 2-0으로 꺾은 후 결승까지 4경기를 단 1세트도 내주지 않는 전국 최강의 실력을 발휘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선광복 크로스컨트리 우승

(보성북내중고)

니주중 박상원·화순초 이원태 ‘금’
전남스키협회장배 스키대회

선광복(보성북내중고)이 제16회 전남스키협회장배 스키대회에서 우승했다.
선광복은 15일 무주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린 대회 크로스컨트리 개인전 고등부에서 53분 35초55로 끝인 1위를 차지했다.
중등부는 박상원(니주중), 초등부는 이원태(화순초)가 각각 우승했다.
단체전에서는 중등부 니주중이 2시간 9분 32초 44로 우승했으며 초등부는 화순초가 1

시간 58분41초05로 1위를 기록했다.
앞편인 대회전에서는 일반부 최희성(광양제철)과 김현숙(목포시)이 남·여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학부는 김태형(건국대)과 이명자(동신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고등부 남·여에서는 김한승(북내고)과 이한샘(순천제일고)이 각각 1위로 끝났으며 중등부는 여인성(곡성중)과 강하리(순천팔마중)가 우승을 차지했다.
초등부 고학년부는 김경관(매산초)과 서수빈(순천왕지초), 저학년부는 이재환(여수부영초)과 이가희(순천팔마초)가 각각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형택 호주오픈 2회전 진출

이형택이 15일 멜버른에서 벌어진 호주 오픈 테니스 챔피언십 남자 단식 1라운드에서 호주 크리스 구치오네의 공격을 받아치고 있다. 이형택이 3-0으로 완승했다. /연광뉴스

봄슬레이팀에 최신행 장비
정부, “해외전훈비도 지원”

한국판 ‘풀러닝’ 신화를 이끄는 봄슬레이 대표팀이 ‘KOREA’가 선명한 최신행 봄슬레이를 타고 2008-2009시즌 국제봄슬레이연맹(FIBT) 월드컵 시리즈에 나서게 됐다.
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은 15일 “김종민 장관이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008 아메리카컵 대회를 통해 사상 첫 월드컵 진출권과 함께 동메달의 쾌거를 이룬 선수단을 축하했다”며 “봄슬레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청과 협의해 대표선수들의 체격에 맞는 봄슬레이를 마련해 주고 해외 전지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수)
▲07/08 V리그 여자부<도로공사> : GS칼텍스(16:30·KBS N SPORTS)남자부 <LG손보> : 대한항공(19:00·KBS N SPORTS)
▲07/08 여자프로농구<신한은행> : 우리은행(16: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LG> : 전자랜드(18:50·XSPORTS)<삼성> : KTF(18:50·SBS스포츠)
17일(목)
▲08/08 잉글리시 FA컵 3R<맨체스터 시티> : 웨스트햄(05:00·MBC ESPN)
▲2008 PGA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1R(05:00·SBS골프)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개강 1월 15일
주택관리사 첫진도 시작반 2개월 완성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남·48), 최영아(여·31))
개강 매월 초 (주,야)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새롭 행정고시학원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서구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농성동 삼익아파트 건너편 - 서경빌딩임대
최적의 업무공간,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리모델링 완료, 동성 지하철도역 5분 거리
서경빌딩 특징: 신세계이마트, 신세계백화점, 금호전자랜드, 광천터미널, 교원공제조합 바로 옆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최최의 업무공간, 지하철 1호선 역세권
지 역: 일반상업지역, 주차대수: 약 100대 (옥내 40대, 옥외 60대)
층별안내: 1층: 농협중앙회, 2층: 임대, 3층: 임대, 4층: 임대, 5층: 임대, 6층: 임대, 7층: 임대, 8층: 임대, 지하: 유흥주점
문의 368-8889 (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93-8번지